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이~목회 33년!

오직 내가 내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나는 내 신앙 고백송 ‘사도의 길’을 항상 마음에 품고 오늘까지 왔다.
 33년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천사의 도움이었다.
 33년 뒤돌아보며 나는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본토와 부모와 처자를 뒤로하고
 죽음을 앞세우고 주만 따릅니다
 주님의 뜻 이루려고 이 목숨 바치오니
 오 내주여 오 내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이 세상 땅 끝까지 주만 따릅니다
 당신의 뜻 이루려고 몸과 맘 드리오니
 오 내주여 오 내주여 내게 능력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모함을 뒤로하고
 십자가 등에 지고 주만 따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험한 길 기려이니
 오 내주여 오 내주여 내게 권능 주옵소서

시도가 되게 하소서
 수제자 되게 하소서
 순교자 되게 하소서

오늘도 떠납니다, 주의 복음 전하러!
 내일도 떠납니다, 주의 복음 전하러!
 땅 끝까지 가립니다, 주의 복음 전하러!

2017. 12. 22
 朋友 이초석

봉 우 컬 럼

꼭! 하고픈 말

여보게!

둥지 밖이 무서워 떠나지 못하는 새는 날 수 없는 병든 새요, 사람이 주는 먹이만 먹는 호랑이는 야생에 적응 못하고 되돌

아온다네.
 배는 항구에 매어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야. 대양을 향해 일을 찾아 나서게. 도전과 모험 없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네.
 여보게!
 총칼 없는 전쟁,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어. 이 사람아, 정보와 무기 없이 전쟁에 승리하겠는가? 또한! 설계도면과 연장 없이 능률 있게 일하겠는가?

내가 먼저 준비하고 배우고 익히고 깨닫게. 남을 가르치려 말고 나부터 배우고, 남보고 ‘능력 받으라’ 외치기 전, 내가 능력 받고, 남을 변화시키려 말고 나부터 변화하게.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네. 내가 모르고 남을 어떻게 이끌 수 있단 말인가! 아는 것이 힘이고, 배워야 살고, 아는 것 없이는 할 일도 없다네.
 예수님의 리더십!

섬김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주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필요한 연장을 제공해주는 것이야! 책망보다 격려와 용기, 희망과 믿음을 주며 장점을 살려주는 것이지.
 여보게!
 내 두 친구, 기도와 노력은 오늘의 날 만든 도구였지! 노력과 기도를 당할 무기는 이 땅에 없다네. 朋友 이초석 목사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3:6~9)

네 영·혼·육의 녹을 제거하라

부부 사이가 냉랭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사장과 직원 사이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는 관계에 녹이 슬었기 때문입니다. 녹이 슬어 서로 소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를 많이 해서 그 녹을 제거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녹이 슬어서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녹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우리 삶 전체가 녹슬고 맙니다. 이는 마치 녹슨 파이프라인을 통해 아리수를 마시는 결과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질의 수돗물을 보내 주어도 녹슨 파이프라인을 통과하게 되면 그 물은 결국 녹물이 됩니다. 그 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 해롭게 되고, 결국 병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총과 사랑을 보내건만 녹슨 심령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왜 그리 힘들고 어려웠는지 말입니다. 왜 가난하고, 병들고, 괴롭고, 우울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되는 게 하나도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녹슬었으니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녹물을 마시는데 건강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 다. 이제라도 이 녹을 제거해야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보이고, 삶에 생명이 소생할 것입니다.

자주 쓰는 열쇠는 녹이 슬지 않는다

녹이 슬는 것에는 기름을 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칠을 해야 합니다(엡5:18).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살전5:17). 자동차도 그냥 놔두면 녹이 슬듯 기도를 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녹이 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녹이 슬었나 안 슬었나 진단부터 해볼까요? 알아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기도했는데 요즘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녹슨 겁니다. 부정적인 말, 세상적인 말, 저속한 말, 불평과 원망이 당신 입에서 나온다면 이미 녹슨 거고요. 예전에는 성가대로, 안내위원으로, 차량으로 봉사했었는데 지금 손 놓고 있다면 역시 녹슨 겁니다. 예배시간이 지루하고 길게 느껴진다면 역시 신앙에 녹이 슬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녹물을 먹는다고 바로 죽지는 않습

니다. 그게 몸에 점차 쌓이고 쌓이면 이상이 오고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자신은 느끼지 못하지만 삶이 미끄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계가 녹이 스는 것은 금속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녹이 스는 것은 지구상에 떠도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 악한 영들, 곧 마귀의 세력을 내어 쫓고 제어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

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 9:28~29).

답

이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서는 음부의 권세들

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

서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새벽에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기도가 떠난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 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성령의 은사도 녹슬게 됩니다.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총구가 녹슬면 총알이 안 나간다는 거죠. 방언기도를 오랫동안 안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귀신 쫓는 거요? 교단의 눈치를 보느라 귀신을 쫓지 않던 어느 목사님이 능력이 상실한 것을 봤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도 패해야 마르지 않습니다. 믿음도, 예언하는 것과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 모두 사용해야 더욱 은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만물은 쓰면 줄어들지만, 모든 은사는 써야 능력

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신행 휴대폰이라도 배터리가 나가면 전화할 수 없고, 정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데 배터리가 나가면 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고, 성령을 통해 천국으로 가는 길과 정보를 보내주시건만,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지니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러

다 마귀의 밥이 되어 영영이 하나님과 이별하게 되고, 천국과도 이별하게 됩니다. 그러니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게



총회장 이초석 목사

전에 항상 충전하듯 날마다 그날그날

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죄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시107:10~11). 그 분의 말씀과 뜻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얇은 줄을 끊으시며, 낚시를 깨뜨리시고 쇠 빛장을 꺾으시며, 위경에서 건지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 1:2).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녹슬면 범사에도 녹이 슬고 육체의 건강까지 녹슨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녹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과원지기가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심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나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눅13:8~9). 이는 녹을 제거하고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녹슨 삶이요, 병든 삶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주인이 찍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연장도 쓰지 않으면 녹슨다

저는 운전면허증을 딴 지가 45년 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전을 잘 못합니다.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 운전하고 시내로 나가면 온몸이 땀으로 젖을 만큼 긴장하고 헤맽니다. 기도를 안 하다가 하면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습니다. 목만 잠기고, 기침만 나오고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면, 특히 정해진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면 앉자마자 기도의 줄이 잡힙니다. 그 기도가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 기도가 삶을 녹슬지 않게 하는 윤택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육체도 녹슬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육체입니다(마 16:26). 비싼 자동차니까 아낀다고 안타면 녹슬고 삭아버립니다. 육체도 마찬가지로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해야 녹슬지 않습니다. 꼭 헬스클럽에 가야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도 하고, 틈나는 대로 많이 걸으세요. 그러면 녹슬지 않습니다. 또한 혼도 녹슬지 않게 양서도 많이 읽고, 좋은 음악도 들으세요. 그래서 혼에도 기름칠을 해주세요. 그래서 천박한 사람이 아닌 교양과 품격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 영·혼·육의 녹을 제거하여 2018년 새해에는 우리 삶에 생수가 평평 나오게 합시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발걸음이 때가 맞아 돌아가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봅시다. 기도의 위력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인이 됩시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할렐루야!

목사님 성역 33년의 값진 선물

오직 예수 (Only Jesus)

농사중의 자식농사가 제일이라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득한 듯하다. 그 생각의 결과가 교육열로 표출되었고, 세계 제일의 문맹률 퇴치국가가 되었다. 그 교육열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계 유수의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을 부인할 자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백성들의 뜨거운 자식농사에 대한 열정이 하나가 되어 세계에 유래가 없는 발전을 이룬 모범국가가 되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도 탄탄하다. 미래 위에 지은 나라가 아니고 고난 속에 피어난 꽃처럼 연단과 지식 기반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 목사님의 성역 33년이 되었다. 교회와 교단은 끊임없이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것이다. 그리고 말하나마나 그 일을 감당해온 일꾼이 있었고, 앞으로 이끌어갈 일꾼도 필요하다. 향후 이 큰 교단을 이끌어 갈 2세대, 3세대가 없다면 교단은 그것으로 멈추고 말 것이다.

이번 기도원 집회에서 목사님께서 2세대인 전도사들을 단에 세워 설교하게 하셨다. 나는 그들을 데리고 단에 올라가 소개하고 마무리하는 일을 하였는데, 참으로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었다. 어느새 저 어린 전도사들이 저렇게 컸나, 설교에 은혜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정체성이 분명하다.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다. 예배 내내 울면서 그들의 설교를

들었다. 은혜 받아 울고, 대견해서 울고, 목사님 생각하며 울고, 하나님께 너무 너무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예배 뒤에 무거운 짐이 툭하고 떨어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내가 펜스레 앞날을 걱정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지만, 큰 사람 밑에서는 큰 인물이 자란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목사님 성역 33주년을 맞아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찌 그들뿐이겠는가. 더 많은 다른 2세대 종들도 동일하게 커가고 있다는 든든함이 밀려온다. 전도사들이 설교하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이 목사관에 모여 이 구동성으로 감사의 말을 하고, 이젠 우리에게 지어진 짐을 끝까지 잘 지고 가기만 하면 우리 할 일은 다 했다고들 기뻐한다. 그 뒷일은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일한다’는 속담처럼, 튼튼하고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준 2세대들이 더욱 힘있게 지고 갈 것이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3:13~14).

목사님 성역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시어 우리 곁에 계셔서 감사드리고, 33년을 한결같이 목사님과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시대 목사

영상팀으로 봉사를 하며 가까이에서 본 목사님의 모습은 단 아래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목사님은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설교하신다. 정말 그것은 진짜가 있다. 카메라를 통해 클로즈업된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여 복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진다. 필자는 총회장 목사님의 많은 말씀 중에 유독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세계 목회자 영성세미나 때 말씀하셨던 ‘백문백답, 천문천답이 예수’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며, 목사님의 신앙철학이요 목회철학을 압축하신 것이라 여겨진다. 많이 부족하지만 나 역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쳤어도 예수 때문에 미쳤다는 사도 바

울의 고백만큼, 우리 목사님의 이런 고백이 우리 예수중심교인으로 하여금 더욱 좁은 길로 가게 하는 힘이 된다. 목사님을 본받아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려고 한다.

목사님의 성역 33년이다. 눈물로 점철된 33년임을 우리는 안다. 얼마나 힘드셨고, 애쓰셨는지 누구보다 우리 성도들은 잘 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목사님이 자랑스럽고 감사할 뿐이다.

목사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이은성
es2563@naver.com



:: 진리의 학당 ::

성경의 권위 (요20:30~31)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다. 만물이 있기 전, 피 뿌리진 옷을 입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육신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기록대로 오셨으니 예수를 알고 믿는 길은 성경밖에는 없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변함없이 성령이 보증하시는 진리이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들어오셨고, 인류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 속에서 인류는 하나님을 뵈는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면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깨우치지 못하면 잡다한 이야기가 되고 만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이 방황을 거듭했다. 그러므로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산책과도 같고, 깊이 흘러가는 생수의 강과도 같다할 내용을 요약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의 성경 이해를 도와 성경과 일치하는 진리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라 하겠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증거하고 계신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요일1:1).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요1:1~4)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또 장차 하실 일을 모두 알고 계신다.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동자와 같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께서 자신을 진리라 하신 것은 예수로써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요14:6~7).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후사이니 하나님의 상속자이다(히1:2). 하나님은 자신의 행복을 상속하시되 자신의 이름을 상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만이 후사로서 영광을 얻으셨다(요17:24).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인데 오직 아들에게만 주어졌다(마1:21).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름을(히1:4) 자기 피로 사신 우리에게도 주셨으니(17:11~12, 26)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1:12)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사랑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셨고,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된 것이다(롬8:17). 자녀의 영혼에 예수라는 이름을 심어주시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말한다.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를 보내셨다는 것과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내 영혼 깊은 곳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은 바로 후사의 권세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후사이시나 그가 부활하신 후 하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될 그의 것들이니(시100:3) 예수께서 받으신 영광과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다르지 않다(계22:5).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만아들이라고 했고(히1:6)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라 했다고(히2:11). 우리는 그가 받은 영광을 받을 것이며 그가 누리는 행복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를 알 수 있다. 이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였고, 또 성령은 이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는 그가 행하시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목숨을 성경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과거에 붙들고 있던 세상의 논리를 모두 내려놓고 성경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고후10:3~5).

우리는 성경에 권위를 두어야 한다. 성경에 권위를 둘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나게 된다. 우리는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을 얻어야 한다. 기록된 성경을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성경은 내게 주신 현찰이요 기업이다. 성경에서 나는 믿음을 얻고 성경에 흘러가는 생수를 마시자. 말씀을 받은 자는 신적권위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영이요 생명이요 영광과 권세가 있다.

박덕규 목사

루돌프 신앙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들려오는 루돌프 캐롤은 원래 동화로 쓰여진 이야기다. 원작자 로버트 메이는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돌보던 중, 엄마가 아프다고 놀림 받아 울며 돌아온 딸을 위해 루돌프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었다. '남들과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거야! 다른 시슴들이 놀려대며 웃었던 루돌프의 코가 산타에게는 특별한 힘이었던단다!' 이 이야기를 들은 딸은 남들과 달랐던 자신의 가정형편을 비관하기보다 특별함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로버트의 루돌프 이야기는 이후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 삶에도 루돌프 같은 서글픔이 있다. 가정, 물질, 건강, 인간관계에 실패하기도 하고 좀처럼 극복되지 않는 자신만의 콤플렉스나 내적 상처들이 사회생활을 방해하고 신앙 성장을 억누르기도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당신이 특별하다고 하신다. 사사 에훗을 보자. 성경은 그를 '왼손잡이'로 기록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오른손이 묶여있다'는 뜻으

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그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 족속이었으니 가문의 수치로 천대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억압했던 모압 왕 에글론을 그의 왼손을 통해 암살하였고, 결국 에훗은 왼손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영웅이 되었다. 더불어 하나님은 그가 살아있던 8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도록 그를 높이시고 신원해주셨다(삿3:12~30). 기생의 자녀라고 무시와 조롱 받다 거리로 쫓겨난 임다 역시 하나님께는 특별했다. 누구보다 겸손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는 거리생활을 하며 만나게 된 시정잡배들까지도 인솔해내는 지도력과 통솔력을 얻게 되었고, 결국 자신을 비웃던 고위 관리들이 되레 자신들을 구해주길 요청하며 그를 흠모하게 되었다. 작은 키와 비난 받는 직업을 가졌던 삭개오도 예수님께서는 특별했다. 키가 작다는 단점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뵈고자 하는 열정과 실행력으로 추진되어 뽕나무로 기어올라 예

수님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는 구원을 얻은 물론이요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라도 온전한 선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 받을 수 있었다. 이 순간,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무너진 모든 마음들 위에 작은 중보기도와 위로로 보낸다. 더불어 열등감을 잠재력으로, 실패를 과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그래서 완전히 넘어지거나 오랫동안 낙심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래본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당신은 정말로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7~29).

하인명
renming@daum.net

☞ 따뜻하고 부드러운 언어, 음식, 사람, 환경을 싫어할 자 없다
Everybody would love to have warm people, with a soft voice and words, and good environment.
没有一人讨厌温柔的言语、食物、人和环境。

☞ 얼굴은 네 마음의 거울이다 어떤 일 있어도 화내지 말고 웃어라
Your face reflects your heart.
Do not be angry, instead smile no matter what happens.
脸面是心灵的镜子。无论有怎样的事情,也不要生气,要微笑。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약식동원 고기편

우리가 자주 먹는 육류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오리고기가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내 몸에 적합한 육류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소고기는 성질이 미지근하고 달고 독성이 없다. 주로 비위경락으로 영양을 주고,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며, 기운을 돕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 소고기는 오래된 병으로 몸이 몹시 허약하거나 수술 후 수술부위가 아물지 않을 때, 손발이 차거나 설사를 할 때, 허리나 무릎이 아플 때 도움이 된다. 수술 후에 소고기 100g에 대추 열개를 넣고 끓여 복용하면, 수술부위의 회복을 촉진한다. 부추와 같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고, 몸에 염증이 많을 때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돼지고기는 성질이 소고기에 비해서는 조금 차고, 독성이 없으며 비위경락 및 신장경락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진액을 공급하며 기운이 나게 하므로 가래가 없는 기침이나 변비, 피부건조, 남종독 등에 효능이 있다. 몸에 진액, 즉 수분을 공급하는 효능으로 인하여 비만한 체질의 경우 과식할 경우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일으키고, 고혈압,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할 기회가 증가되기에 과식은 삼가는 것이 좋다. 잘 체하거나, 설사를 할 때는 복용

을 줄이는 게 좋으며, 돼지껍데기는 교원 단백질이 많이 있어서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탄력성을 증가시키며, 피부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여 피부가 고와진다. 몸에 살집이 많거나 열이 많은 경우에는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닭고기는 비위경락으로 들어가며, 소화기를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도우며, 뼈와 근육을 튼튼히 한다. 닭고기는 육류 중에서 지방 함량이 적고 포화지방산이 적으면서도 단백질은 풍부하게 함유하여 노인과 심혈관 질병 환자에게 비교적 좋은 단백질 식품이다.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해서 감기로 열이 나거나 염증이 있을 때, 과식을 하게 되면 두통, 어지럼증, 눈이 충혈될 수가 있다. 닭날개와 닭다리는 열을 만들기에 고혈압 환자는 안 먹는 것이 좋다. 몸보신을 하고 면역을 높이거나 암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닭고기, 특히 오골계 100g에 등충하초 5g, 산약 30g을 물에 붓고 끓여서 고기와 탕을 같이 먹으면 좋다. 기운이 없고 피곤하며 땀이 잘나고 감기가 자주 걸릴 때 삼계탕에 황기 30g을 넣어주면 효과가 좋으며, 안색이 핏기가 없고 잘 어지러울 때는 당귀 15g을 넣어서 삼계탕을 끓여주면 더욱 좋다. 네 번째, 양고기는 비위경락 및 신장경락으로 들어가며, 달고 다른 육류에 비하여 성질이 따뜻하고 뜨거운 성질이 있

다. 열이 많거나 임신부는 소량 먹는 것이 좋으며, 성질이 따뜻하고 열량이 소고기보다 높아서 겨울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온기를 만들어 주어 한기를 막아준다. 고기질이 연하고, 소화가 잘되며, 생후 1년 미만인 어린 양을 램(lamb)이라 하여 양고기 특유의 냄새가 없다. 소화가 잘 안되거나 배가 차거나 허리나 무릎이 시큰거릴 때, 양고기 250g에 좁쌀 120g과 함께 죽을 쑀어 소금, 생강, 산초가루를 적당히 넣고 하루에 2~3차례 나누어서 먹는다. 다섯 번째, 오리고기는 폐, 비, 신경락으로 들어가며, 몸에 수분, 영양분을 공급시켜주고, 소변을 시원하게 하며 붓기를 빼주고, 해독의 효과가 있다. 특히 닭고기는 몸이 찬 경우에, 오리고기는 몸이 좀 더운 경우에 도움이 되며, 유허오리의 경우는 오리의 해독작용에 의해서 유허의 독성성분이 없어지고 우리 몸에 좋은 유기유허의 형태로 변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고기도 각각의 성질이 다르므로 내 체질과 건강상태에 따라 알맞게, 그리고 적당량을 먹는다면, 다른 어떤 음식보다 기운이 나고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좋은 음식임에 틀림없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식사는 하셨나요?

“식사는 하셨나요?” 우리나라에선 유독 사람마다 만나면 “식사하셨나요?” 라고 묻는 것이 인사다. 아마도 전쟁 등으로 식사 한 끼조차 어려웠던 시기를 겪은 애환이 담긴 문화이지 않은가 싶다. 만약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뷔페에 가서 거하게 식사를 하고 6일간은 쫄쫄 굶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우리 육체의 생명은 유지하더라도 건강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4:4).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중 목사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 말씀은 거하게 차려진 뷔페와 같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만 일주일을 산다면 우리 신앙은 유지할 수 있을지언정 영적인 우리 영혼의 건강은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요리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라면 하나라도 끓여서 식사를 거르지 않고 챙겨먹어야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말씀 한 장이라도, 아니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영혼에 섭취를 시켜줘야 영적인 에너지가 생성되고,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교회에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기도처예배 등 여러 예배의 자리가 있어 습관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먹여주시나 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한번 꼴로 하는 식사 또한 건강을 책임지지 못할 테니. 건강을 위해선 최소 매일 끼니를 챙겨먹어야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나는 여느 때처럼 인사를 한다. “오늘 식사는 하셨나요?” 박찬영 cross35@hanmail.net

Merry Christmas!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9장 6절)

